



건협 광전지부, 롯데백화점 건강캠페인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3일 롯데백화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혈관 건강을 주제로 한 맞춤형 건강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16일 건협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바쁜 근무 환경 속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혈관 노화도 검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혈관 노화 진행 단계와 혈액 순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롯데백화점 직원들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1:1 상담도 함께 진행하며, 식습관과 운동 습관 개선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았다.

한편 건협 광주전남지부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제3회 남도 전국합창경연 페스티벌 성료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합창단이 참가한 ‘제3회 남도 전국합창경연 페스티벌’이 지난 14일 보성 채동선음악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

남도 전국합창경연 페스티벌은 2022년부터 매년 열리는 전남 대표 음악축제다. 대한민국 합창문화의 저변 확대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며,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다.

올해는 전국 11개 시·도 30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동영상 심사를 거쳐 일반부 7팀, 청소년부 5팀, 시니어부 5팀 등 총 17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개성 넘치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본선 경연 외에도 극동방송여성합창단, 헤리티지메스夸이어의 초청공연이 함께 펼쳐져 합창인과 관람객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기독병원, ‘방문구강 건강관리 실무교육’ 성료

광주광역시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은 지난 12일, 광주보건대학교 통합치위생실습실에서 지역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방문구강 건강관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사진)

16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2025년 건강돌봄 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광주 지역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치과 의사 및 치과위생사 등 약 20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을 위한 현장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교육은 김정명 광주시 돌봄정책과 팀장이 ‘통합돌봄의 이해’, 하명옥 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가 ‘방문대상자의 구강 특성과 수행과정’ 주제로 강의했다. 또한 임체조 시연, 구강 내·외 미세기기 활용법, 방문 구강관리 용품 실습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1차 교육은 광주기독병원,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전문 실습실과 실습 기자재를 적극 활용한 점에서 통합돌봄 기반 실무교육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기독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재가노인의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은 지역 보건소 실무자들의 통합돌봄 역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기독병원은 오는 24일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를 주제로 한 2차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교육은 통합돌봄에서의 방문간호의 실제 역할과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빛고을안전체험관, 다문화가족 안전체험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지난 14일 안전을 채우고 즐거움을 나누는 ‘다문화가족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이 안전문화를 이해하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6월과 12월에 이어 3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족 1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화재·산악·호우 안전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안전체험과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생활 중심 안전체험 ‘새싹안전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안전 상식 퀴즈대회와 함께 가족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렸다.

참가자들에게는 포토존을 활용한 가족사진 촬영 기회와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정상이 기자



광주일자리재단·동구·동명상권협의회, 협약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광주 동구·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함께 ‘2025년 광주대표 우수상권 육성 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동명동 상권이 2024년 광주광역시의 대표 우수상권으로 선정돼 우수한 성과를 거둔 데 이어, 2025년 고도화상권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날마다 사람들이 풍경이 되고, 일상의 이야기가 흐르는 골목길 산책’이라는 비전으로, △로컬 콘텐츠 고도화·브랜드 △‘동명 라이프스타일’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골목 생태계 구축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성 재단대표는 “골목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 동구·협의회가 함께 시너지 밸류체인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 북부경찰 건국지구대, 나눔 물품 기부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12일 건국지구대가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중고 유아용품과 중고서적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기부는 건국지구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아기띠, 아기옷 등 다양한 유아용품과 유아·아동 대상의 그림책, 동화책, 학습서적

등이 센터에 전달됐다. 광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부받은 물품을 정리한 후,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런 나눔이 쌓이면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허정 에덴병원장, 전남대에 5000만원 기부

전남대학교는 허정 에덴병원장이 최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 허 원장은 5000만원을 대학발전기금(원금사용)으로 기부했으며, 이근배 전남대총장은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전남대에 따르면 허 원장은 지난 1976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후, 광주 에덴병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져온 산부인과 전문의다.

에덴병원은 자연분만 문화를 선도하며, 한국여성민우회로부터 ‘아름다운 병원’, 유니세프로부터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받는 등 지역 의료의 품격을 높여왔다.

전남대 관계자는 “모교를 향한 따뜻한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노병하 기자

조선대병원, 2025년도 감염관리행사 성료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관 1층 중앙로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감염관리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사진)

16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 및 감염관리 실천 문화 정착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체험과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핸드스캐너를 활용한 손위생 정확도 평가 △안전카테터 및 니들리스 커넥터 실습을 통한 주사침 자상 예방 교육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시연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윤나라 감염관리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의료진 모두가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병하 기자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가 한국 히어로물 ‘하이파이브’를 제치고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사진)

16일 디네로이스 감독의 ‘드래곤 길들이기’는 지난 13~15일 31만8천여명(매출액 점유율 36.7%)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97만7천여명이다.

평일에는 ‘하이파이브’에 밀렸지만, 주말이 되자 1위로 복귀했다.

‘하이파이브’는 22만8천여명(24.3%)이 관람해 2위였다. 누적 관객 수는 150만여명으로 늘었다.

3위는 정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 삼아 만든 오컬트물 ‘신명’이다. 11만9천여명(13.0%)을 더해 누적 관객 58만여명이 됐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미션 임파서블 8’)은 11만2천여명(12.3%)을 모아 4위에 자리했다. 누적 관객 수는 317만여명이다. 연합뉴스